

## 저널리즘의 최후 보루가 된 언론중재위원회

김철훈 건국대학교 초빙교수

2021년 11월 22일부터 2024년 11월 21일까지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 경기중재부에서 3년간 중재위원으로 활동했다. 그 3년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언론을 위해 마지막 봉사를 한다는 각오로 임했던 시간이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매주 조정심리일 전날 조사관으로부터 사건개요 등 관련 자료를 받은 후 다음 날 조정에 임할 때까지 성실하게 준비했던 것 같다. 조정심리 현장에서는 피신청인들에게 문제 된 기사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언론인으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중재부의 진심이 통했는지 대부분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정이 이루어진 기억을 갖고 있다. 그리고 조정이 끝난 후 중재위원들과 함께 우리 언론의 현실에 대한 걱정을 나누기도 했다. 그렇게 보낸 시간이 매우 소중하게 느껴진다.

위원회로부터 원고 청탁을 받은 후 이 귀한 지면에 어떤 내용을 공유해야 할까 고민했다. 그리고 중재위원 활동을 통해 느낀 위원회와 조정 현장에 대한 소회, 중재위원으로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한국 언론의 신뢰 회복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싶어졌다.

중재위원으로서 느낀 위원회에 대한 소회는, 위원회가 명실공히 한국 저널리즘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1980년대 위원회가 탄생할 때만 하더라도 언론계에서는 언론에 대한 관의 통제라는 시선으로 위원회를 바라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언론

보도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고, 그러한 역사가 쌓이면서 언론자유 수호라는 중대한 사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디지털미디어의 시대를 맞아 인터넷 허위 정보 확산에도 대응하는 등 위원회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는 위원회와 사명감에 충실한 직원들, 중재위원들이 한마음으로 헌신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위원회는 다른 기관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정파성 이슈도 대체로 잘 대응해 왔다고 본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현직 부장판사와 언론인, 학자, 법조인으로 구성된 각 중재부가 독립기관으로서 주어진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정파적 부조리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위원회가 앞으로도 이러한 전통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중재위원으로서 심리 현장에서 한국 저널리즘의 부끄러운 민낯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많은 기자들이 자신이 쓴 잘못된 기사가 그 대상에게 얼마나 커다란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 ‘같은 방식으로 기자 자신이나 가족, 지인들이 당해봐야 그제야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조정에 회부된 기사 가운데에는 기사가 악의적으로 작성한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기초적인 저널리즘 글쓰기의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경우였다. 최소한의 저널리즘 기초도 모르는 ‘언론인’이 이토록 많다는 점이 놀랍고 안타까웠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인터넷 언론사 A는 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남녀가 불륜 관계라고 폭로하는 기사를 게재해 피신청인으로 조정심리에 출석하게 됐다. 그런데 그 기사 속 문장이 “했다고 한다”, “였다고 한다”, “전해지고 있다”는 식으로 끝난 것이 의아해서 피신청인에게 질문을 했다. “어디서 얻은 정보이고, 확인은 했느냐”고 묻자, 피신청인은 “게시판에 다 나와 있다”고 자신 있게 답변했다. 그는 게시판에 올라온 글의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남녀가 상관관계라고 매도하는 기사를 써서 올린 것이다. 이 기사 때문에 신청인들은 직장에서 징계를 받는 등의 불이익을 당했고, 소송비용 등 경제적 피해를 감당해야 했으며, 주위의 냉담한 시선을 견뎌야 했다.

이런 식으로 작성된 기사를 중재위원 활동이 끝날 때까지 적지 않게 접할 수 있었다. 심지어 내용을 조작한 기사도 있었다.

인터넷신문 B사는 특정 단체의 비리를 폭로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 사진을 게재하며 ‘파장이 커질 듯’이라는 취지의 허위 기사를 올렸다. 그런데 뒤늦게 피신청인의 황당한 행각이 드러났다. 피신청인이 이 현수막을 직접 만들어서 내건 뒤 기사를 작성한 것이다. 중재위원들은 심리 중에 그가 기사 작성 전에 현수막을 걸고 있는 장면을 확인하며 아연실색했다. 위원회 단골 출석자이기도 했던 피신청인은 다른 건에서 당연히 반영해야 할 중재부 조정제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거부한다”고 말하는 등 언론인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언론의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이었다.

주로 정치인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기사를 써서 조정 당사자가 된 언론사들도 있었다.

인터넷신문 C사는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편파적인 칼럼 형식의 글을 반복적으로 게재해 위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 문제는 비판하는 내용이 팩트라고 보기 어렵고, 또 매우 단정적이고 직설적이어서 정치인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는 점이었다.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기사로 피해를 입은 정치인들의 조정신청이 잇따랐다. C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딸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자 “문재인 전 대통령, 2024년 드디어 ‘제2의 노무현 전 대통령 의문사’ 재현되나?”라는 황당한 제목의 기사를 올리기도 했다. 조정심리에서 피신청인은 중재부가 왜 칼럼까지 단속하려 드느냐며 고성을 지르며 반발하기도 했다.

상습적으로 범죄에 가까운 보도를 남발하고 수익을 얻는 언론사도 있었다.

인터넷신문 D사는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이라며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과 신상정보를 여러 차례 기사로 게재했다. 피신청인은 중대한 사건과 관련된 것이므로 공익 차원에서 보도했다고 버티다가 조정 막판에는 여러 건의 기사들을 스스로 모두 삭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신청인은 이미 직장에서 해고되었고 주위의 시선 때문에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자세한 내용을 말하기 어렵지만 이 기사들은 팩트는 물론 게재 방식까지 모두 엉터리였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D사는 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빈번하게 받는 곳이었으며 인터넷신문윤리 위원회에서도 수십 차례 심의 규정을 위반해 서약 매체에서 제명되었다. 일단 자극적인 기사나 사진, 동영상 올려서 상업적 이득을 취하고, 문제가 생기면 삭제해 주는 것이 D사의 운영 방식이었다.

심리 중에 D사의 젊은 피신청인에게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기사나 사진을 삭제해 주는데, 언론으로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묻자 “잘못되어서 삭제해 주는 것인데 무슨 문제냐”며 ‘맑은 광인의 눈’으로 동문서답을 했다. 그 모습이 일순 섬뜩하게 느껴졌다.

반대로 신청인이라는 신분을 앞세워 소규모 언론사를 돈과 권력으로 압박하는 사례도 목격했다.

인터넷신문 E사는 중재위원 활동을 시작한 후 초반 1년여 동안 거의 매주 피신청인으로 위원회에 출석했다. 어떤 날은 하루에 조정심리가 복수로 잡혀있기도 했다. E사의 피신청인 대리인은 수원에 위치한 경기중재부에 출석하는 날에는 일을 거의 하지 못한다며 하소연했지만, 심리는 이후에도 계속 잡혔다.

처음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감정싸움 정도로 판단하고 조정을 진행했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니 우선 E사의 보도는 언론사로서 당연히 다루어야 할 내용이었고, 기사 문장도 흠결이 거의 없었다. 다만 팩트체크에서 100%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반론보도로 조정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문제는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을 피하기 위해 보도 전 신청인 측에 팩트체크를 위한 취재를 시도해도 신청인 측이 의도적으로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었다. 제3자의 입장에서 신청인의 행위는 피신청인의 불완전한 기사 게재를 기다렸다가 바로 조정신청을 하는 ‘언론사 괴롭힘’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그래서 어느 날 중재위원들은 언론인 출신인 신청인 대리인에게 “언론중재위원회는 잘못된 기사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게 하는 것이 임무지만, 언론의 자유를 지켜주는 것도 중요한 사명”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 대리인은 신청인에게 중재위원의 조언을 잘 전하겠다고 했고, 이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조정 현장에서 E사의 피신청인과 다시 마주치는 일은 없었다. 그는 지금도 E사를 운영하며 언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웹사이트에서 확인했다.

한 가지 더 기억에 남는 사례는 동일 신청인에 의해 조정의 당사자가 된 다수 언론사들의 기사가 오탈자까지도 베낀 동일한 기사였던 것이다. 중재위원들이 이 점을 지적하자, 피신청인들은 “지역에서는 이런 식으로 취재 공유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덤덤하게 대답했다.

조정 현장에서 접한 모습들은 매우 걱정스럽고 가슴 아팠다. 그러나 언론은 잘못되었다고 폐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방치하면 더 악화되는 치명적인 공기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걱정만 하면서 손을 놓고 바라만 볼 수는 없었다.

사실 평생을 언론인으로 불리며 살아온 사람으로서 한국 저널리즘의 신뢰 회복을 화두로 많은 생각을 해왔다. 우리 언론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현실에 대한 부끄러움과 책임감의 발로라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언론 상황은 일면 회복 불능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비관적이다. 어렵고도 복합적인 문제가 뒤얹혀 있기 때문이다. 언론 관계자라면 모두 공감할 것이라고 보는데, 한국 언론의 위기는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언론사 내부의 편집권 침해 문제, 저널리즘의 원칙을 무시하는 정파적 보도와 시대에 뒤떨어진 법체계 문제, 미디어 변화에 대한 언론사의 부적응과 이에 따른 전통적 수익모델 붕괴 문제 등 그 원인이 복잡하고 다단하다. 언론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하나가 거대 답론을 필요로 하는 난제여서 각론에 들어가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중재위원 활동 중 피신청인들의 기사를 접하면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발상을 바꾸면 언론의 신뢰 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발상의 전환이란, 우선 통계적으로 접근해 보는 것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전체 조정신청 중 인터넷신문의 기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70% 가량이다. 시정권고에서는 84.3%(2024년 총 942건 중 794건)를 차지했다. 조정대상보도 또는 시정권고심의 대상 보도 10건 중 7~8건이 인터넷신문사에 의해 작성되는 현실인 것이다.

작금의 언론 불신의 원인을 인터넷신문에 모두 돌리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지만, 인터넷신문이 불신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위의 조정 사례에서 보듯 이들 언론사 중에는 의도적으로 잘못된 기사를 작성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언론사로서, 언론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을 몰라서 ‘본의 아니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저널리즘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기사 쓰기를 몰라 조정신청을 당하는 것이다. ‘주장이 있으면,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팩트가 있어야 한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반론권 보장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와 같이, 당연한 기본을 몰라서 피신청인이 되는 것이다. 이들 중에는 기본적인 글쓰기 원칙만 지켰어도 오히려 칭찬받았을 기사들도 있었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실제로 현장에서 ‘기사를 잘 쓰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겠다’고 고민하는 기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들은 나름대로 언론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기사쓰기로 조정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이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었지만, 동시에 현장에서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들에게 저널리즘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기사 작성법을 알려준다면 단시간에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조정의 대상이 되고 있는 70~80%의 인터넷 신문 기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언론개혁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위원회에 제안하고 싶었다. 기초가 부족한 인터넷신문 기자에 대한 기사쓰기 교육을 위원회의 새로운 과제로 삼으면 어떨까. 이는 최근 위원회가 애쓰고 있는 인터넷 허위 정보 확산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는 레거시 미디어 기자들의 저널리즘 역량 강화를 위해 수습·재교육 프로그램과 심층 취재·팩트체크 교육 등을 담당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역할과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중재위원으로서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준 위원회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언론피해 구제와 저널리즘 수호를 위해 애쓰고 있는 위원회 직원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